

승리신문

극기(克己)의 수도(修道) 과정

미륵부처님은 성불하시기 전(奎) 수도 과정에서 '나'라는 의식을 이기기 위하여 반대생활을 철저히 하셨다. 졸리면 잠을 안 자고,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일하기 싫으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더욱 좋아하는 생활을 하셨던 것이다. 미륵부처님은 먹고 싶은 욕구와 수면 욕구를 이기기 위하여 30대에 30일 동안의 금식기도를 열네 번을 하셨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30일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요즘처럼 정치인들이 금식을 한다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다가 탈진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맞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금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을 통해서는 물과 음식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 것이다.

30일 금식기도를 할 때는 풀어 얹은 자세에서 30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움직임이 없이 선정에 드시는 용맹정진으로 30일간 금식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불경에는 아래와 같이 용맹정진으로 수도를 하여 성불한다는 말씀이 있다.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11권 선지식품(善知識品) 제 20
彌勒菩薩 經三十劫 미륵보살 경삼십겁 應當作佛至眞等正覺 응당작불지진등정각 我以精進力 勇猛之心 아이정진력 용맹지심
미륵보살이 30겁이 지나면 반드시 참된 평등함의 바른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루는 데 용맹스러운 마음으로서 정진한 힘 때 문이다.



이렇게 미륵부처님께서는 3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다. 더욱이 열두 번째는 얼음 위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기도를 하셨다.

열세 번째 금식기도를 할 때는 바닥에 뽀족뽀족한 자갈을 깔아놓고 그 위에 반바지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3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으며 열네 번째는 바닥에 유리병을 깨서 깨진 칼날 같은 유리병 조각 위에서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30일 동안 무릎을 꿇고 금식기도를 해냈던 것이다.

이후 1년간 세상의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지나기도 하셨다. 그러나 30일 동안의 14번의 금식기도와 1년간 세상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경지에 오를 정도로 자신을 어느 정도 이기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자신을 이긴 승리자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미륵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마음과 싸우기 시작하셨다.

과거의 기억도 마귀의 마음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마음이고, 하나

님(부처님) 이외의 다른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마음이고, 자신을 의식하는 것도 마귀의 마음이고, 심지어 좋아하는 것도 마귀의 마음이다.

이러한 모든 마음은 '나'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따라서 '나'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마귀의 마음임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겨야 자신을 이긴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미륵부처님은 '나'를 이기기 위하여 철저한 반대생활을 시작하셨다. 죽을 정도로 힘이 든 일을 하시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나올 때 그 생각을 이기고 계속 일을 하였으며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결국은 그 사람이 미륵부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天地八陽神呪經 천지팔양신주경	善男子 佛即是法 法是佛 선남자 불即是法 法是佛 선남자 불즉시법법즉시불 승합一相即現大通智勝如來 합일왕신즉현대통지승여래
----------------------------	---

선남자여, 부처님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부처님이니 하나로 합하는 모양으로 되어 크게 통달하고 지혜로써 (번뇌마•음마•사마•천마)이기신 부처님(成佛)이시니라.

미륵부처님은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역만 마귀를 다 이기게 되니 결국 자신 속의 무량대수의 마귀들과 모두 싸워 지혜와 용맹정진의 수행으로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던 것이다.

땅의 신(地神)이 크게 외쳤다 [미륵(彌勒)이 성불(成佛)했다]
--

미륵불이 성도(成道)하는 날, 나무와 풀이 절하고 공기까지 춤을 추었다. 온 인류와 만물이 고대하고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던 구세주이신 미륵부처님(하느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오셨다. 경전에 나와 있는 석가모니가 설한 예언이 실제 일어났던 것이다.

도대체 미륵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비중 있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숨겨 놓았을까? 다음의 경전의 내용을 보자.

대방광불화엄경(大般涅槃經) 2권 순타품(純陀品) 2	如來亦爾 降煩惱魔 陰魔 天魔 死魔 여래역이 항번뇌마음마침마사마 是故如來 名三界尊 如彼力士 一人當千 是故여래 명삼계존 여귀역사 일인당천 以是因緣 或就具足 種種無量 眞實功德 이시인연 혹취구족 종종무량 진실공덕 故稱如來應供正遍智 고칭여래응공정변지
하단에 계속	

“지금 미륵이 불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

(미륵)여래(彌勒佛)는 또한 이와 같이 번뇌의 마귀(煩惱魔), 음란의 마귀(陰魔), 하늘의 마귀(天魔), 죽음의 마귀(死魔)를 이겼으므로 여래를 삼계에서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며, 마치 저 힘쓰는 사람 혼자서 마땅히 천 명을 상대하듯이, 이러한 인연으로 가지가지 무량하고 진실한 공덕을 갖추었으며 그러므로 여래, 응공, 정변지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어렵게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것을 경전에서 석존은 미륵이 불도를 닦은 후 땅의 신(地神)이 “지금 미륵이 불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부분을 경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제 44권 십불선품(十不善品) 제 48 (3)	時彌勒菩薩 坐彼樹下 成無上道果 시미륵보살 좌피수하 성무상도와 當其夜半彌勒出家 即其夜 당기야반미륵출가 즉기야 成無上道 時三千大千刹土 六變震動 성무상도 시삼천대천찰토 육변진동 地神各各相告曰 今彌勒已成佛 지신각각상고왓 금미륵이성불
(그)때에 미륵보살은 도나무 아래 앉아 위없는 도를 이루려고 그날 밤에 미륵보살이 집을 떠났으니 곧 그 밤에 위없는 도를 이룰 것이다. (그)때에 삼천 대천의 (온 우주가) 6번 진동하고 땅의 신(地神)이 (미륵에게) 이르기를 “지금 미륵이 불도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삼존불(三尊佛) 중 여인으로 오신 홍엄비 해와 이간자께서 1980년 10월 15일 조화성님을 향하여 “네가 이	

제는 이간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에 대하여 조화성님은 마음속으로 제가 이겼나요? 하느님이 이기셨지요?라고 화답하였으며 이어서 해와 이간자께서 “또 이겼다.”라고 선언하심에 또 이긴 것도 하느님이 이기셨나이다.라고 화답하는 장면이다.

이어 며칠 후 해와 이간자께서 “네가 이제는 완성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였으며 이후 얼마 후 “네가 이제는 하느님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심으로 육천 년 전 마귀에 의하여 깨어졌던 삼위일체 하느님이 육천 년 만에 드디어 조화성님의 몸에서 다시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완성되신 것이다.

미륵부처님의 성불하심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과정은 하늘 사람들만의 문답이었으므로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산의 풀과 나무와 바람은 미륵부처님의 성불하심을 알고 미륵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였다. 이를 불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59권 이세간품(離世間品) 第 38-7	菩薩摩訶薩 坐道場時 보살마하살 좌도당시 一切世界 草木叢林 諸無情物 일체세계 초목총림 제무정물 皆曲身低影 歸向道場 개곡신저영 귀향도당 是爲第四未曾有事 시위제사미증유사
보살마하살(미륵부처님)이 도당에 앉을 때에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과 무정물들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당으로 향하니, 이것이 넷째 처음 있는 일이라.	

참으로 신비하게도 우주의 주인이자 미륵부처님이 해와이간자로부터 이간자가 되었다고 한 날, 산에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석존이 화엄경을 통하여 예언한 일이 석존 사후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 1980년 10월 15일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각 종교의 주인공인 미륵부처님•하느님•알라•정도령•진인•심승인 등은 모두 한 분을 칭한 것이며 문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와 민족에 따라 달리 부르지만 구세주 한 분을 지칭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암행어사를 상징하는 증표가 마패이듯이 각 종교의 주인공인 구세주의 증표는 바로 감로(甘露•이슬성신)가 있어야 하며 이 감로가 없다면 가짜가 되는 것이다.

절점의 스님들이 마시는 차를 감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감로가 아니다. 감로는 바로 우주의 주인이 미륵부처님(하느님)의 실체(實體)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슬성신 즉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은 곡선 광선이기 때문에 거침과 막힘이 없이 못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다음은 미륵부처님의 말씀이다.
‘나’라고 하는 마귀가 약 6000년간 하느님을 지배해 왔지만 오늘날 한국 땅에 ‘나’ 라는 마귀를 죽이는 위대한 이간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간자는 사람이 아니다. 하느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해 죽이고 절령을 하신 것이므로 이간자가 참조주 하느님이다.
그래서 지금 대 우주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를 모조리 전멸시키기 위하여 전라상 우주를 조종하면서 6000년간 주관했던 마귀를 멸해버리고 그 왕위를 빼앗아 이간자가 그 왕위를 점령했다. 그런데 이간자의 시대가 도래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세상 말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은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은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가르침입니다. 우선 죄를 짓지 않아야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죄에 대해서 논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며,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마음이 바로 욕심이고, 욕심이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영입니다.

마귀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의식인 고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인공이었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었

습니다. 마귀 영은 사랑과 고통의 신이요, 죽음을 주는 영인 고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법이 나를 죽이는 법인 고로, 나를 죽이는 비결은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생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즉 반대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죽이는 자유율법입니다.*

이기는 삶	당당히 부딪혀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불행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윗대 조상이 벼슬을 했건, 부자였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속이 차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안 내력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다소나마 보상받기 위한 보상 심리의 작용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결모양이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심리 때문에 그런 말을 자주하게 된다. 옛날 것은 옛날 것을 아는 데 필요하다. 과거지사(過去之事)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고 핏계, 탓, 이유를 대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패자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변명거리가 많을수록 결과는 나빠진다. 삶에서 끌어내는 즐거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내는가와 반비례한다. 만일 당신이 과거에 집착하여 며칠 밤을 새우며 이야기해도 다 못할 긴 이유들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일은 핏계거리가 있다고 해서, 혹은 안되는 이유를 남독이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하는 바를 완수했을 때,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이다. 핏계나 변명도 습관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 ‘무엇무엇 때문에’라는 핏계를 대지 말라. 학벌이 없기 때문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하지 말라.	말이 씨가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안 된다. 그러므로 과거사를 들먹이며 안 된다는 이유와 핏계를 대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낸 것이다.
앞으로 실패할 사람, 불행해질 사람일수록 이런 탓과 핏계를 많이 찾는다. 당신을 묶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모든 것을 무슨 탓으로 돌리면 자기 계발은 불가능해진다. 탓하고 핏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 뭇수룩 그 변명의 조건들은 점점 더 잡재의식 속에 깊이깊이 입력되어 영원히 구제 불능의 인간이 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과거처럼 살면 과거와 같아진다. 과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구차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를 단호히 청산하라. 어제의 생활과 오늘의 생활이 그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각오로 행동할 때 당신의 내일은 달라진다. 정정당당히 나서서 부딪혀라.*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간자의 5대공약』

since 1981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마귀 욕(慾)을 파하고 양심이 되는 하느님의 영이 석방되어 나오는 것을 가리키어 <부활함을 입는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같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승리자에게는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